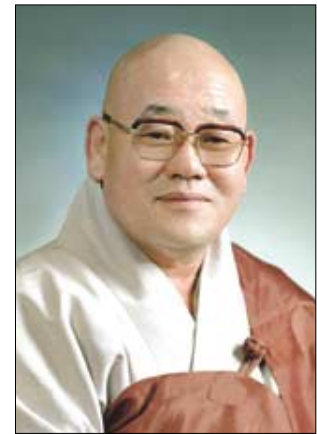


#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원적



■법장 스님 행장

1975. 양산 통도사 극락선원사 안거 성료  
1980.~ 중앙종회의원 4선 역임  
1981.1.19. 조계종 중앙종회 사무처장  
1982.3.27. 조계종 사회부장  
1984.1.09. 조계종 재무부장  
1984.8.02. 조계종 선거관리 위원  
1984.8.30. 조계종 재심회계위원  
1987.7. 학교법인 동국학원 재단감사  
1992.4.22.~2003. 2. 수덕사 주지  
1992.4.~2003.5. 충청남도 지방경찰청 경승실장  
1994.4. 조계종 개혁회의 의원  
1994.11.~ 조계종 법규위원  
1998.3. 전국 본사주지연합회 회장  
1999.2. 한국방문의 해 추진위원  
1999.~2003.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  
1994.~ (사)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  
1999.1. 한국불교선학연구원 이사장  
2003.2.~ 조계종 총무원장, 중앙승가대 이사장,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회장,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회장

■수상경력

1982.7.9. 조계종 종정표창 수상  
2001.6.20. 교정대상(자비상) 수상  
2001.12.27. 국민훈장(무련장) 수상

## 9월 11일 새벽... 대종사·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15일 조계사서 종단葬... 법구 기증 따라 다비식 없어



조계종 총무원장 권한 대행 현고 스님(사진 오른쪽)과 상좌 정목 스님(왼쪽)이 법장 스님 영정 앞에 대종사 법계를 봉정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我有一鉢囊  
無口亦無底  
受而不濫  
出而不空

법장 스님이 원적에 들기 직전 시자 진광 스님에게 써준 평소의 가르침.

조계종 총무원장 인곡(仁谷)당 법장(法長) 스님이 9월 11일 오전 3시 50분 경 원적에 들었다. 세수 64세, 법랍 45년.  
조계종은 11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스님께서 더욱 건강한 몸으로 종단 발전에 전력하고자 신병을 치료하던 중 열반에 드셨다"며 "총무원장스님의 갑작스러운 열반 앞에 애절한 마음을 감출 길 없으며 전 종도와 더불어 깊은 애도를 드린다"고 발표했다.  
빈소는 조계사 대웅전을 비롯해 전국 교구 본사별로 설치됐으며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을 일도 없다. 영결식은 15일 오전 10시 조계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 인곡당법장대종사종단장(葬)'으로 치러진다. 장례위원장 겸 총무원장 권한대행 현고, 호상은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등, 장례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중앙종회 부의장 장주

원택, 해인사 주지 현응,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이 맡았다.  
조계종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제31대 총무원 집행부는 스님의 큰 뜻을 계승해 종헌 종법 질서에 따라 총무원장 권한대행 체제를 구축하고, 조속한 시일 내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총무원법에 따라 총무원장 권한대행을 총무부장 현고 스님이 대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계위원장 보성 스님을 비롯한 법계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법장 스님에게 '대종사' 법계를 추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법장 스님은 11일 새벽 입적하기 전 시자 진광 스님 요청에 따라 평소 대중 법문 때 마다 신도들에게 즐겨 말씀했던 "나에게 바람이 하나 있는데(我有一鉢囊) 입도 없고 밑도 없다(無口亦無底) 담어도 담어도 넘치지 않고(受受而不濫) 주어도 주어도 비지 않는다(出出而不空.)"를 시자스님 노트 뒷장에 친필로 남겼다.  
정부는 13일 법장 스님이 재임중 활발한 국내의 활동을 통해 민간 외교에 기여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법장 스님은 1960년 수덕사에서 원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뒤 제방선원에서 안거를 성단했다. 중앙종회의원 4선, 수덕사 주지, 동국학원 이사,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 한국불교선학연구원 이사장,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왕성한 사회활동을 펼쳤고 종정표창, 교정대상(자비상) 국민훈장(무련장) 등을 받았다.  
한편 스님의 법구는 지난 1994년 사후에 각막, 장기, 시신을 기증하기로 서약한 것에 따라 동국대 일산병원에 기증됐다. 따라서 종단장 최초로 다비식 없는 영결식이 거행된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노무현 대통령 조의 메시지



### “남북 화해 기여 자비 실천 큰 교훈”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원적에 들자 외국을 순방중인 노무현 대통령(사진)이 9월 11일 조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노 대통령은 조의메시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대종사의 입적을 애도한다"며 "대종사께서는 한국 불교의 선택을 정립하고 정법 수호에 앞

장서 오셨다"며 원적을 애도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최근 북한을 방문하는 등 남북 화해와 협력에도 크게 기여하셨다"며 "특히 동체대비사상을 바탕으로 부처님의 자비하심을 생활속에서 실천해 오신 것은 중생들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다"며 고인의 업적을 기렸다.

■사회 각계각층 조의 및 조화 보내와

### 열린우리 · 한나라 · 민주당 등 애도 논평 천주교 주교회의 “종교 화합 기여” 밝혀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원적에 들자 사회 각계각층에서 조의를 표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당 등 각 정당은 9월 11일 각각 애도 논평을 냈다. 열린우리당은 논평에서 "법장 스님께서는 부처님의 자비와 은혜를 소외된 사회의 구성구석을 직접 찾아다니시며 행동으로 보여 주신 '실천적 불교'의 표상이셨다"며 "특히, 남북한 불교 교류 활성화를 위해 각국과의 불교 교류 등 왕성한 대외 활동으로 한국 불교의 위상과 그 깊이를 세계인과 함께 해 오셨다. 인류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자

비와 자애로 포용하셨다"고 애도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도 11일 "불교의 발전과 종교간 화합에 크나큰 기여를 하신 스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데 대하여 많은 불자들이 슬픔을 함께한다"며 "법장 스님께서 보여주시는 화합과 일치 정신이 우리 안에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만 불광산 종위원회도 12일 "큰스님의 높고도 높은 기개와 엄격하고 근엄한 수행정신, 넓고도 모범적인 사람됨, 보살의 깨끗한 실천, 불교계가 모두 존경했다"고 애도했다.  
남동우 기자



조문 온 스님들이 민장을 쓰고 있다.



빈소가 마련된 조계사 법당에서 독경하는 불자들.

##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한 보시행...

### 장의위, 법장 스님 법구·장기 동국대 병원에 기증 1994년 사후 각막·장기·시신 기증 서약에 따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시신과 장기가 종립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 기증돼 종단장 최초로 다비식 없는 영결식이 거행된다.  
법장 대종사 장의위원회위원장 현고는 "생전에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을 역임하며 난치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한 장기기증운동을 이끌었던 법장 스님은 지난 1994년 3월 24일 누구보다 먼저 사후에 각막 및 장기, 시신을 기증하기로 서약했다"며 "이에 따라 문도들과 장의위원회는 수차례 숙의를 거쳐 법장 스님의 유지를 받드는 것이 스님의 실천행을 완성하는 것이라 의견을 모아 조계종 총무원에 청원함에 따라 총무원 집행부에서는 긴급 총무회의를 개최해 시신기증을 의결했다"고 9월 12일 발표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12일 오후 3시 30분 경 조계사에 안치됐던 법구는 간단 한 이윤의식을 거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으로 이운됐다. 또 15일 영결식 후 예정됐었던 다비식은 취소됐다.  
이와 관련 장의위원회는 "생명운동에



법장 스님의 법구가 9월 12일 동국대병원으로 이운되던 조계사 법당앞에서 고통식을 봉행하고 있다. 사진=박재원 기자

매진해왔던 법장 스님의 법구가 다시 새로운 생명의 씨가 되고, 우리 사회 내에서 보다 광범위한 생명나눔운동으로 활성화되게 하는 촉매제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스님의 깊은 뜻이 널리 알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서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기획실장 법안 스님은 이날 오전 "장제에 들어 온 모든 조의금은 생명나눔실천본부와 승려노후복지기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철주 기자 yjc@buddhapia.com

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대종사 원적 현대불교신문사 임직원 일동 모

# ‘함께 하는 종단, 신뢰받는 종단’ 만들기 혼신

## 각종 제도 개선사업 추진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 아니 이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당선자로서의 기쁨은 다하고 슬한 번민과 고뇌만이 기다리고 있지 모릅니다. 하지만 총무원장이 짊어져야 할 몫이라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종단과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고뇌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2003년 2월 24일 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으로 당선된 법장 스님. 스님은 ‘슬한 번민과 고뇌만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갔다.

스님은 취임 100일을 맞아 제31대 총무원 총책기조 및 중점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법장 스님은 ‘함께 하는 종단, 신뢰받는 종단’을 구현하기 위해 4대 정책 기조 아래 31개의 구체적 사업을 제시했다. 4대 정책 기조가 바로 △수행중흥 진작으로 거듭나는 종단 △참여 속에 함께하는 원용종단 △종도와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종단 △미래를 지향하는 효율적인 종단 실현이다.

법장 스님은 4대 정책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조계종 최초로 ‘비구니 부장’을 임명했다. 비구니 처법이 엄중하는 현실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하지만 스님은 “비구니 스님이 과반수가 넘고 여성의 역할이 커지는 사회흐름에 따라 비구니 스님을 부장에 임명했다”며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선거공약이었던 ‘비구니부 신설’은 스님 원칙으로 향방을 가능하기가 어려워졌다.

스님은 또 종단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인 승려노후복지를 위해 ‘자비의 보험금 나눔 운동’을 펼쳐 약정금 20억여 원을 확보했다. 10개 교구 본사에 실비노양시설 설립을 정부 지원을 받아 진행시켰고, 세남 65세 이상 스님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승려노후복지 대책팀을 구성했다. ‘스님들의 노후가 보장되지 않으면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종단이 안정될 수 없다’는 지론 때문이다.

종단의 근간을 새롭게 다지기 위해 승가교육제도 개선 사업도 추진했다. ‘승가교육개선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 승가교육개선안을 마련한 다음 현대적인 승가교육체계의 단초를 마련했다. “제대로 된 성직자가 되기 위해선 기초교육이 탄탄해야 한다”는 스님의 소신이 잘 나타나 있는 대목이다. 2004년에는 승종 진좌와 종단 위계질서 확립 차원에서 그 동안 골칫했던 대종사 법계 품서서 거행했다. 종지종중 신앙을 위해 종도 도의 국사 차례재를 병행했을 뿐 아니라 (조계종사) 고종 세편을 발간해 종단사 정립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했다.

종단의 실질적인 화합과 중앙과 교구본사 간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처음으로 교구별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방의 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한 뒤 중무에 반영토록 하기 위함이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1사찰 1가정 결연 후원 운동을 전개할 때다. 중앙총무기부 부실장과 국장들이 종로구청 내 소년소녀가장과 결연할 때, 스님은 당시년부터 결연한 소년소녀가장에게 대학 진학 시까지 장학금 지원을 약속했다. ‘말’ 보다 ‘실천’이 중요



2004년 12월 착공식을 거행한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 스님이 총무원장 당선 이후 가짐을 쏟았던 불사다.



지난 5월 미국 방문시 법장 스님이 미국 정부 대북 관계자들을 만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요청했다.

## 승가교육 체계개선에 온 힘...승려노후복지 원력커 최근 3개월 北·美·이라크 등 6國 순방 ‘평화 메신저’ 대 사회활동 왕성...피해 동남아 불교국 돕기 앞장

하기 때문이다.

### 불사에 남다른 노력

법장 스님은 총무원장에 당선되기 전부터 ‘행정의 달인’이라고 불리며 각종 ‘불사’에 남다른 능력을 보였다.

총무원장 당선 후 스님이 가장 힘을 쏟아 추진했던 불사는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 한국불교미래를 개척해 나갈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는 공주 마곡사 인근에 3권간 국교 122억원, 자부담 122억원 등 총 244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돼 대지 9천여평 건틀 4천여평으로 조성된다.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는 조계종 스님 및 신도, 불교단체, 문화예술단체들의 교육과 연수활동을 개발·유지하게 된다. 또 무형의 유산을 문화산업으로 개발할 뿐 아니라 국제화추진 체험센터를 운영, 한국 선불교사상을 내·외국인들에게 전파할 예정이다.

스님은 부처님 뜻을 펴기 위해 국내외를 가리지 않았다. 역대 선지식의 인연처였던 금강산 신계사를 복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현지에서 대웅보전 낙성식을 병행했다. 복원불사는 2007년까지 만세루, 3층 석탑, 요사채 복원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법장 스님은 낙성식에서 ‘소실되었던 신계사를 복원한다는 것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족화합과

통일의 초석을 놓은 것’이라고 복원 의의를 밝혔다. 지진해일 피해를 입은 남아시아 국민들을 위해 ‘자비의 탁발’로 20여억 원을 모금한 것은 종단 초유의 일로 기록될 만 하다.

이를 바탕으로 2004년 5월 불교국가인 스리랑카에 ‘조계종 마을’을 건립할 수 있었다. 스리랑카 라투나푸라 지역에 건립된 조계종 마을에는 총 2억6천만 원의 ‘자비의 수재성금’이 투입돼 마을회관, 법당, 심혈전, 보건소 등이 마련됐다.

조계종은 뿐만 아니라 스리랑카에 고아원과 양로원을 포함한 현대식 종합복지센터를 건립 운영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법장 스님은 조계종의 총본산 격인 조계사와 총무원 성역화 사업을 이끌었다. 2004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차 준공식을 완료했으며, 1달 뒤에는 전체 공사를 회향하는 준공식이 열릴 예정이다. 총본산성역화불사기금 10억여 원도 모금해 향후 성역화 불사의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

2005년 여름에는 박물관 수장고 공사를 완료해 ‘불교중앙박물관’ 개관 기반을 확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불교중앙박물관 전시실 공사 문제로 고초를 겪기도 했다. 공사 일침부터 법장 스님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관여된 부정과 비리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책을 내놓기도 했지만 ‘월간중앙’ 사태

등 원적 전까지 힘든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 국내외 사회활동 활발

“부처님은 사람들이 강을 놓고 서로 차지하려고 영토 싸움을 할 때 강이 중요한 사람이 중요한가 하시며 싸움을 말했다. 핵 포기는 모든 인류의 희망이지만 이는 성급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포기시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2005년 5월 미국 정부 대북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장 스님은 생전 ‘1달에 1만km’를 다닌 것으로 유명하다. 그만큼 대외 활동이 왕성했다는 증거다. 특히 원적이 들기 전 가장 활발했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이 ‘원적이 드시기 전 미리 다 둘러보고 가시려고 이렇게 바쁘게 다니셨나 보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법장 스님은 원적이 들기 4개월 전인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이라크, 미국, 북한, 대만, 사할린, 일본 등 6곳을 순방했다.

이와 관련 법장 스님의 사형인 설정 스님(前 중앙종회의장)이 “종단 외부 관계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종단 일이나 잘 처리하라고 당부하면 법장 스님은 ‘순속이 따로 없다. 우리 종교계를 대표해 불교계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며 회고했다. 법장 스님의 이라크 방문 시 여러 가지 견해가 상

반했다. 민간 지도층 인사 최초로 방문하는 것이었지만 이라크 자이툰 부대 성격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장 스님은 “나는 순수하게 종교인으로서 이역만리 타국에서 이라크인들의 재건과 평화를 위해 노고나 큰 우리장병들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다. 장병 여러분분의 정성을 다한 활동이 곧 부처님의 자비를 널리 퍼뜨리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최초로 미국을 방문한 법장 스님이 백악관과 국무부 고위 관리들을 연회적으로 만나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6자 회담 재개를 설득한 일은 국가적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법장 스님은 방문 중 미국 고위 관리들을 통해 이러한 메시지를 담은 전서를 부시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디트러니 북핵 대사는 “스님의 말씀과 간결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서 영광”이라며 “지속적으로 한 미동맹의 결속을 다지고 종교 분야의 역할에 대해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8.15 민족통일대축전 남측 명예대표로 방북해 남북간 화합의 마당을 마련한 것 또한 의미 있는 일로 평가받는다. 현지 총무원장으로는 최초로 방북했을 뿐 아니라 인경호 북측대표를 만나 북핵문제를 평화적인 대화로 풀어야 할 것과 김정일 위원장의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법장 스님은 이외에도 대만을 방문해 포공산소 신원 대사와 만나 한국-대만 불교우호교류 협력방안을 이끌어 냈다. 또 강제 징용된 한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사할린을 방문, 그들의 상처를 위로해 한국 불교에 살아있는 자비심을 심었다.

‘함께 하는 종단, 신뢰받는 종단’을 만들기 위해 국내외를 마다하지 않고 바쁜 걸음을 했던 법장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2005년 9월 11일 오전 3시 50분 경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입도 없고 밀도 없는’ 비방에 담고 원적이 들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 빈소에서 각계 인사 추모의 말

9월 11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원적하 외국을 순방중인 노무현 대통령을 대신해 이병안 대통령 비서실장이 빈소를 찾는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추모가 줄을 이었다. 다음은 11일 원적 후부터 12일 오후 3시까지 빈소를 찾은 사회 지도층의 애도의 마음을 정리했다.

### 나라위해 온몸 실천하신 분

#### ■ 이병안 대통령 비서실장

이병안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법장 스님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이 많았는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전해 오셨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법장 스님에 대해 “국가를 위해 좋은 일을 온 몸으로 실천하신 분이라는 것은 불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을 것”이라며 “스님은 비록 입적하셨지만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지켜봐 주시기를 믿는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법장 스님의 뜻을 계승하고 이어 받아 평화통일의 염원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관련부처를 통해 앞으로 종단과 관련된 모든 일을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 민고 싶지 않을 정도

#### ■ 전두환 前 대통령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입적하시니 무척 서운하다”며 “처음 법장 스님의 입적 소식을 들었을 때는 민고 싶지 않을 정도로 참담한 기분이었다”고 애도했다.

### 늘 각별한 보살핌 주셨건만

#### ■ 이해찬 국무총리

“법장 스님은 존경해오던 종교계 지도자로 평소 국정의 어려움을 상의할 때마다 각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주셨는데 갑자기 입적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애석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비통해했다.

###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했는데...

#### ■ 열린우리당 문화상 의장

“큰스님께서 생전에 참으로 많은 도움을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갑작스러운 열반 소식을 듣고 슬픔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 갑작스런 열반 소식에 큰 슬픔

####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큰스님의 수솔 소식을 듣고 이번 주에 문안 가겠다고 말씀드렸고 스님께서도 반가워하시며 기다리고 계셨는데 갑작스러운 열반 소식을 듣고 큰 슬픔에 잠겼다”며 “한국불교와 종단 대화합을 위해 애써 오셨던 법장 스님의 평소 원력이었던 호국정신을 잘 받들어 계승하고, 큰스님께서 극락왕생하시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 스님 잃고 나니 외로움 느낀다

#### ■ 한화갑 새천년민주당 대표

“법장 스님이 주신 묵향 선물을 핸드폰에 잘 달고 다니면서 늘 자랑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상상도 못했다. 마음속으로 저를 많이 아껴

주시던 스님을 잃고 나니 굉장한 외로움을 느낀다”며 사형인 설정 스님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 얼마전 보였는데 이리 무상할수가

#### ■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

정동채 문화관광 장관은 “저에게 총무원장 스님께서는 국사를 들볼 때 항상 차분하게 임하라는 충고와 더불어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따뜻한 위로로 주셨던 분”이라며 총무원장 스님을 회고했다.

정 장관은 “한국불교 증흥기에 크나큰 일을 앞두고 입적해 매우 애석하다. 그러나 스님께서 불교계를 위해 애쓴 것을 국민 모두 알고 있다. 후학들이 스님의 뜻을 잘 이어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입적을 애도했다.

### 남북 화해협력 뜻 이어야

#### ■ 정동영 통일부 장관

“종교계 큰 지도자로서, 국민들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법장 스님의 입적이 믿겨지지 않는다. 평소 남북간 종교교류, 화해 협력에 크게 기여해주셨던 큰스님이 안 계신 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진다”며 “불교계가 남북 교류와 종교교류를 위해 헌신했던 법장 큰스님의 뜻을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애도했다.

### 문병 계획했는데 황망

#### ■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2주전 아침, 저녁을 함께 했고 10일간 남미출장 다녀와 문병을 하려고했는데 황망하다”며 “영결식에 참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은 국민 애도...슬픔 금치 못해

#### ■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사부대중 모두를 위해 노력해주신 법장 스님께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근태 장관은 “신뢰받는 종단을 표명하고 불교를 바르게 세워주시는 스님께 은 국민이 애도를 표하고 있다”며 “스님의 뜻을 성취하고 발전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환경문제 조언해주셔서 빛진 심정

#### ■ 박선숙 환경부 차관

“법장 스님께서 환경문제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늘 빛진 심정이었다”며 “너무나 허무한 일이라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다”고 설정 스님에게 말했다.

### 사회통합 노력해온 훌륭한 지도자

#### ■ 이미경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갑자기 입적하시게 돼 너무나 놀랍고 슬프다”며 “법장 스님은 불교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온 훌륭한 지도자”라고 애도했다.

### 큰 뜻 받들겠다

#### ■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개인적으로 사회활동을 같이했고 공직활동 시작 후에도 청백회장 소임을 맡아 인연이 깊었고 평소 많이 아껴주셔서 의지가 되었는데 비보를 접해 황망하다”며 “종교활동뿐만 아니라 정부 분야까지 관심 가져주시는 스님의 큰 뜻을 받들어 어

긋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 역사문화기념관 준공 보셨더라면

#### ■ 이명박 서울시장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준공을 앞두고 원적하신 것이 안타깝다”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은 불교시설만이 아니라 시민의 시설이니 만큼 조경문제 등 스님 유지를 받들어 시민들과 국가의 중요한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과학자로서의 삶에 길잡이

#### ■ 황우석 서울대 교수

“강화 전등사에서 총무원장 스님 폐우 불공을 드리다가 빈소를 찾았다”는 황 박사는 “어제 뵈 때까지만 해도 좋으시더니 너무 큰 충격이다”며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했다.

“어제 저녁 모든 고통과 아픔은 내가 짊어지고 가셨다면 큰 스님의 말씀이 마지막이 될 줄 몰랐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큰스님은 과학자로 삶에 길잡이가 되어 주셨다”면서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과학을 쫓아 위 달라는 스님의 당부 말씀처럼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황망하게 가시니 망연자실

#### ■ 백낙침 남북공동행사준비위원회 상임대표

“법장 스님께서 8·15 민족대축전에 참가하시면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황망하게 가시니 망연자실할 뿐이다”고 말했다.

# 평생 고통 모으러 다닌 인자하고 따뜻했던 수행자

## 불교 대중화 세계화 앞장선 '원력보살'



수해 지역을 방문한 법장 스님이 직접 비질을 하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사람들이 원장스님 원장스님 하지만 난 그저 고통을 모으러 다니는 나그네일 뿐이지요."

총무원장 소임을 맡은 지 6개월째 지난 2003년 여름, 법장 스님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법장 스님의 45년 수행자 생활은 스님 스스로가 원했듯이 대중과 함께 한 삶이었다. 사람을 좋아했던 성품 그대로 누구에게나 따뜻함을 잃지 않는 인자한 수행자였던 법장 스님. 법장 스님은 덕숭산 가풍을 이은 잠선 수행자로서, 종단의 최고 행정 전문가로서 선종을 진작시키고 불교의 사회화·대중화·현대화를 이루기 위해 오롯이 대승보살의 실천적 삶을 살아 온 이 시대의 '원력보살'이었다.

법장 스님은 출가 뒤 덕숭산의 정혜사 능인선원과 통도사 극락선원에서 용맹정진을 하며 5만여 동안 회두정진을 했다. 선의 본산인 수덕사 주지를 맡고 나서도 법장 스님의 수행정진은 계속됐다.

매일같이 정진을 거르지 않으며, 새벽예불은 반드시 올리고, 도량청소에 빠지지 않으며, 대중들과 함께 공양하고, 사하촌에 오매 머물지 않는다는 다섯 가지 계율을 스스로 정하고 이를 지켰다.

평소 법장 스님은 '신심·원력·무사심(無私心)'을 수행자가 지나야 할 기본자재라고 강조했다. 그 래서 후학들에게는 늘 "신심이 없으면 속인과 다를 바가 없으니, 일체의 사심을 버리고 수행에 정진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력으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이렇게 수행자로서의 면모를 지켜 나가면서 한국 근대 선의 중흥조인 경허·만공·용성 대선사의 선종을 진작시키는데도 앞장섰다. 1992년에는 '한국

불교선학연구원'을 설립해 선 보급에 나섰다. 선 지중찰인 수덕사의 본래 모습을 되찾겠다는 계획 아래 수덕사 종합 중창불사를 벌였다.

총무원장이 돼서도 선 중흥에 대한 관심은 식지 않았다. 인터넷을 통해 한국 선을 알리고, 외국인들을 위한 잠선 수행관을 짓겠다는 발원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했으며, 각종 선법회에 참석하는 등 선의 대중화에 앞장섰다.

법장 스님은 수덕사 주지 시절부터 지자가 인정하는 종단의 최고 행정 전문가로도 꼽혔다. 1981년 조계종 중앙총회 사무처장을 시작으로 총무원장에 발을 들여놓은 법장 스님은 조계종 사회부장, 재무부장 등을 거치면서 실무능력을 쌓았다.

또 수덕사 주지로 있으면서 정부 및 자치단체 행정에 대해서도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렇게 다져진 이론과 실무능력은 총무원장으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 정부 행정을 펼치면서 빛을 발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법장 스님의 진면목은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다. 수덕사 주지시절 불우한 아이들을 데려다 키운 것이나, 교도소 재소자 교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실무능력은 총무원장으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 정부 행정을 펼치면서 빛을 발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법장 스님의 진면목은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다. 수덕사 주지시절 불우한 아이들을 데려다 키운 것이나, 교도소 재소자 교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실무능력은 총무원장으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 정부 행정을 펼치면서 빛을 발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법장 스님의 진면목은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다. 수덕사 주지시절 불우한 아이들을 데려다 키운 것이나, 교도소 재소자 교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실무능력은 총무원장으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 정부 행정을 펼치면서 빛을 발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법장 스님의 진면목은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다. 수덕사 주지시절 불우한 아이들을 데려다 키운 것이나, 교도소 재소자 교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실무능력은 총무원장으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 정부 행정을 펼치면서 빛을 발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법장 스님의 진면목은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다. 수덕사 주지시절 불우한 아이들을 데려다 키운 것이나, 교도소 재소자 교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실무능력은 총무원장으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 정부 행정을 펼치면서 빛을 발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법장 스님의 진면목은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다. 수덕사 주지시절 불우한 아이들을 데려다 키운 것이나, 교도소 재소자 교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실무능력은 총무원장으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 정부 행정을 펼치면서 빛을 발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법장 스님의 진면목은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다. 수덕사 주지시절 불우한 아이들을 데려다 키운 것이나, 교도소 재소자 교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실무능력은 총무원장으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 정부 행정을 펼치면서 빛을 발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법장 스님의 진면목은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다. 수덕사 주지시절 불우한 아이들을 데려다 키운 것이나, 교도소 재소자 교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실무능력은 총무원장으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 정부 행정을 펼치면서 빛을 발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법장 스님의 진면목은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다. 수덕사 주지시절 불우한 아이들을 데려다 키운 것이나, 교도소 재소자 교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실무능력은 총무원장으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 정부 행정을 펼치면서 빛을 발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법장 스님의 진면목은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다. 수덕사 주지시절 불우한 아이들을 데려다 키운 것이나, 교도소 재소자 교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실무능력은 총무원장으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 정부 행정을 펼치면서 빛을 발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법장 스님의 진면목은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다. 수덕사 주지시절 불우한 아이들을 데려다 키운 것이나, 교도소 재소자 교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실무능력은 총무원장으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 정부 행정을 펼치면서 빛을 발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법장 스님의 진면목은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다. 수덕사 주지시절 불우한 아이들을 데려다 키운 것이나, 교도소 재소자 교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실무능력은 총무원장으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 정부 행정을 펼치면서 빛을 발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법장 스님의 진면목은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다. 수덕사 주지시절 불우한 아이들을 데려다 키운 것이나, 교도소 재소자 교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실무능력은 총무원장으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 정부 행정을 펼치면서 빛을 발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법장 스님의 진면목은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다. 수덕사 주지시절 불우한 아이들을 데려다 키운 것이나, 교도소 재소자 교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실무능력은 총무원장으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 정부 행정을 펼치면서 빛을 발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법장 스님의 진면목은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다. 수덕사 주지시절 불우한 아이들을 데려다 키운 것이나, 교도소 재소자 교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실무능력은 총무원장으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 정부 행정을 펼치면서 빛을 발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법장 스님의 진면목은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다. 수덕사 주지시절 불우한 아이들을 데려다 키운 것이나, 교도소 재소자 교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실무능력은 총무원장으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 정부 행정을 펼치면서 빛을 발했다.

스님은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사람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불사"라고 임버릇처럼 말했다.

법장 스님은 다정다감한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과 격의 없이 만나길 좋아했다. 언제 어디서든 자신을 만나러 온 사람은 그냥 돌려보내는 법이 거의 없었다.

다. 2년6개월의 총무원장 재임기간 중에 사람들을 만난 횟수는 역대 총무원장 중 최고다. 승 돌림 틀 없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법장 스님은 일반사회 사람들은 물론 신도단체 대표로 신행단체 불자들 대부분을 만났다.

체면과 격식을 차리지 않는 성품이었지만 어른을 공경하는데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깎듯했다. 누구보다 '승려노후복지'를 강조했던 것도 바로 이런 성품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모든 것을 항상 열어 놓고 있어야 한다'는 소신은 총무원장이 돼서도 변함이 없었다. 총무원 출입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감 없이 해달라"고 요청했을 정도로 법장 스님은 언제나 마음을 열어놓으려고 노력했다.

체면과 격식을 차리지 않는 성품이었지만 어른을 공경하는데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깎듯했다. 누구보다 '승려노후복지'를 강조했던 것도 바로 이런 성품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모든 것을 항상 열어 놓고 있어야 한다'는 소신은 총무원장이 돼서도 변함이 없었다. 총무원 출입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감 없이 해달라"고 요청했을 정도로 법장 스님은 언제나 마음을 열어놓으려고 노력했다.

체면과 격식을 차리지 않는 성품이었지만 어른을 공경하는데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깎듯했다. 누구보다 '승려노후복지'를 강조했던 것도 바로 이런 성품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모든 것을 항상 열어 놓고 있어야 한다'는 소신은 총무원장이 돼서도 변함이 없었다. 총무원 출입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감 없이 해달라"고 요청했을 정도로 법장 스님은 언제나 마음을 열어놓으려고 노력했다.

체면과 격식을 차리지 않는 성품이었지만 어른을 공경하는데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깎듯했다. 누구보다 '승려노후복지'를 강조했던 것도 바로 이런 성품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모든 것을 항상 열어 놓고 있어야 한다'는 소신은 총무원장이 돼서도 변함이 없었다. 총무원 출입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감 없이 해달라"고 요청했을 정도로 법장 스님은 언제나 마음을 열어놓으려고 노력했다.

체면과 격식을 차리지 않는 성품이었지만 어른을 공경하는데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깎듯했다. 누구보다 '승려노후복지'를 강조했던 것도 바로 이런 성품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모든 것을 항상 열어 놓고 있어야 한다'는 소신은 총무원장이 돼서도 변함이 없었다. 총무원 출입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감 없이 해달라"고 요청했을 정도로 법장 스님은 언제나 마음을 열어놓으려고 노력했다.

체면과 격식을 차리지 않는 성품이었지만 어른을 공경하는데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깎듯했다. 누구보다 '승려노후복지'를 강조했던 것도 바로 이런 성품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모든 것을 항상 열어 놓고 있어야 한다'는 소신은 총무원장이 돼서도 변함이 없었다. 총무원 출입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감 없이 해달라"고 요청했을 정도로 법장 스님은 언제나 마음을 열어놓으려고 노력했다.

체면과 격식을 차리지 않는 성품이었지만 어른을 공경하는데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깎듯했다. 누구보다 '승려노후복지'를 강조했던 것도 바로 이런 성품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모든 것을 항상 열어 놓고 있어야 한다'는 소신은 총무원장이 돼서도 변함이 없었다. 총무원 출입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감 없이 해달라"고 요청했을 정도로 법장 스님은 언제나 마음을 열어놓으려고 노력했다.

체면과 격식을 차리지 않는 성품이었지만 어른을 공경하는데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깎듯했다. 누구보다 '승려노후복지'를 강조했던 것도 바로 이런 성품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모든 것을 항상 열어 놓고 있어야 한다'는 소신은 총무원장이 돼서도 변함이 없었다. 총무원 출입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감 없이 해달라"고 요청했을 정도로 법장 스님은 언제나 마음을 열어놓으려고 노력했다.

체면과 격식을 차리지 않는 성품이었지만 어른을 공경하는데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깎듯했다. 누구보다 '승려노후복지'를 강조했던 것도 바로 이런 성품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모든 것을 항상 열어 놓고 있어야 한다'는 소신은 총무원장이 돼서도 변함이 없었다. 총무원 출입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감 없이 해달라"고 요청했을 정도로 법장 스님은 언제나 마음을 열어놓으려고 노력했다.

체면과 격식을 차리지 않는 성품이었지만 어른을 공경하는데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깎듯했다. 누구보다 '승려노후복지'를 강조했던 것도 바로 이런 성품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모든 것을 항상 열어 놓고 있어야 한다'는 소신은 총무원장이 돼서도 변함이 없었다. 총무원 출입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감 없이 해달라"고 요청했을 정도로 법장 스님은 언제나 마음을 열어놓으려고 노력했다.

체면과 격식을 차리지 않는 성품이었지만 어른을 공경하는데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깎듯했다. 누구보다 '승려노후복지'를 강조했던 것도 바로 이런 성품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모든 것을 항상 열어 놓고 있어야 한다'는 소신은 총무원장이 돼서도 변함이 없었다. 총무원 출입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감 없이 해달라"고 요청했을 정도로 법장 스님은 언제나 마음을 열어놓으려고 노력했다.

체면과 격식을 차리지 않는 성품이었지만 어른을 공경하는데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깎듯했다. 누구보다 '승려노후복지'를 강조했던 것도 바로 이런 성품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모든 것을 항상 열어 놓고 있어야 한다'는 소신은 총무원장이 돼서도 변함이 없었다. 총무원 출입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감 없이 해달라"고 요청했을 정도로 법장 스님은 언제나 마음을 열어놓으려고 노력했다.

체면과 격식을 차리지 않는 성품이었지만 어른을 공경하는데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깎듯했다. 누구보다 '승려노후복지'를 강조했던 것도 바로 이런 성품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모든 것을 항상 열어 놓고 있어야 한다'는 소신은 총무원장이 돼서도 변함이 없었다. 총무원 출입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감 없이 해달라"고 요청했을 정도로 법장 스님은 언제나 마음을 열어놓으려고 노력했다.

## 내가 본 법장 스님

사형 설정 스님과 말상좌 정묵 스님, 그리고 총무를 맡았던 기획실장 법안 스님은 9월 12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기자회견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법장 스님과의 인연을 회고했다.

## 신념·소신 뚜렷한 열정가

### 수덕사 수좌 설정 스님(사형)

▲법장 스님의 출가시절은?

-개인적으로 법장 스님과 나는 은사 원담 스님 문하로 5년차를 두고 출가했다. 젊은 시절부터 사제로 오랜 기간 애뜻한 정을 나눴던 관계다. 어린시절 법장 스님은 악하고 말랐었다. 하지만 그렇게 부지런할 수가 없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오셨을 무렵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던 모습이 지금도 선하다.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수행에 소홀해질 수 있는데 한번도 예불이나 참선에 빠지는 법이 없었다.

▲법장 스님은 어떤 분이셨나?

-생전의 법장 스님은 나뉠의 신념과 소신이 뚜렷하신 분이였다. 일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해서 잠은 서너 시간 이상을 주무시지 않았다. 인간관계에서도 남녀노소 부자거나 가난한 이



나 누구도 가리지 않고 만나셨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이 누구라도 만나는 모습을 지켜보면 저절로 존경심이 날 정도였다. 승속가리지 않고 자신을 만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최선을 다해 하셨다. 수덕사 주지를 15년 하면서 자기개인통장은 하나도 없었다. 유품정리를 하면서도 남은 건 지인들이 병원에 보태라고 준 위문금 조금이었을 뿐이다.

▲은사 원담 스님은 알고 계신가?

-방장 원담 스님께서는 아직 말씀 못 드셨다. 개인적으로 은사 스님께는 당분간 알려드리지 않는

## 매사에 막힘없이 표리일체

### 선본사 주지 정묵 스님(말상좌)

▲법장 스님의 병체는 어땠나?

-은사스님은 14년 전 총남병원에서 심장수술을 하신 적이 있다. 2달 정도 치료를 했는데 완치는 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막혔던 심장의 혈관 2곳을 뚫는 수술이었다.

▲입적 전 남긴 말씀은 없었나?

-입원하실 때부터 마지막 입적 전까지 사제 도신 스님하고 같이 오셨다. 수술 전 은사스님은 한라산을 가지고 싶어 하셨다. 종단 소임자들과 재가 종무원, 조계사 식구들과 꼭 한라산을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수술실에서 시자를 통해 쓰시던 물건(수덕사 토굴 방문열쇠 등)들을 저에게 전하셨다. 지금 입고 있는 장삼도 은사스님이 물려주신 옷이다. 24번째 한번도 은사스님을 벗어 나 실어는 적이 없는데 오늘 최인의 심정으로 이런 자리에 서게 됐다.

▲스님과의 인연은?

-은사스님을 처음 뵈 것은 열 살 무렵 친척스



님의 손을 잡고 수덕사로 갔을 때다. 따스한 손길로 나를 거두어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은사스님은 제게 엄격한 스승이자 자애로운 아버지였다. 저 말고도 수많은 이들이 은사스님과의 인연으로 불법을 만났다. 상좌는 약 40명 정도다. 재가유발 상좌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평소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이 있다면?

-일생동안 수덕사의 가풍을 실천해 오신 분이시다. 늘 생사에 연연하지 말고 '마음한번 일어남이 태어남이요 마음한번 사라짐이 죽음이요'라 순간이 영원과 같음을 알고 최선을 다하라' 당부하셨다. 은사스님의 유지를 따르기 위해 문도들 모두가 신명을 바쳐 스님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나갈 것이다.

## 열린 총무행정 틀 다지고 변화 이끌어

### 기획실장 법안 스님

▲종단 소임자들의 충격이 크지 않나?

-아직도 꿈을 꾸는 듯하다. 실감이 나지 않는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서 조금씩 현실로 느껴진다. 막상 병원에 입원을 하시면 날까지도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다. 수술직전에 종단 소임자들에게 따로 말씀을 남기시겠다고 하셨지만. 큰 수술을 앞두고 원장 스님에게 부담을 드릴 것 같아 일부러 밝지 않았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다.

▲재임 중 기억에 남는 일은?

-취임후 2년 7개월을 재임했던 법장 스님은 수덕사 시절부터 입적 전까지 정말 불꽃같은 시간을 보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총무를 보아 오셨다. 31대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총무시스템의 변화도 많았다. 비구니스님이 부장을 맡았고 포교원 교육원에 국장직에 비구니스님들을 중



용했다.

입적하시기 전까지 교구본사의 자치권한 확대와 승려노후복지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도입에 많은 신경을 쓰셨고 실제로 상당부분 도입이 되고 있다. 좀 무 내적으로는 외부 감사시스템의 도입 등 많은 변화를 이끄셨다.

▲법장 스님의 유지가 있다면?

-늘 관심이 크셨던 분야가 사회복지였다. 그 가운데서도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애정이 컸다. 그렇게 스님의 도움을 받아 자라난 아이들이 많다. 영결식 날 스님의 도움을 받았던 한 이이가 직접 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식순에 반영하려고 한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 활발한 복지·사회 활동 펼치다



법장 스님은, 인식이 아직 생소했던 10여년전 불교계 장기기증본부인 '생명나눔실천회'를 창립, 이타행에 앞장섰다. 사진은 2004년 3월31일 롯데호텔에서 거행된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창립 10주년 법회에 참석한 법장 스님(앞줄 왼쪽).

9월 11일 열반에 든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역대 총무원장 가운데서 가장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했다.

"항상 모든 것을 열어놓고 있어야 한다"는 소신으로 스님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자유자재

한 대화를 펼쳤으며 불교의 대중화, 사회화를 위해 헌신했다.

그래서 상좌스님들은 '늘 말씀보다 행동이 우선하는 분'이었다고 회고한다.

스님은 이미 조계종 총무원장에 선출되기 전부터

## 체면·격식 따지지 않고 수많은 이들과 열린대화 불우 어린이 꾸준히 도와

이렇게 자상한 성격 때문에 때로는 "총무원장 격에 맞지 않게 작은 일에도 나선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법장 스님은 "모두가 부처님 일인 데 크고 작고 어디에 있겠느냐"고 말했다.

소탈하고 꾸밈없는 성격 역시 이따금씩 '종단 정치'에서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했다. 능란한 정치보다는 원칙과 대화로 풀어나가려는 법장 스님의 스타일은 때로는 '종단 정치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그때마다 법장 스님은 늘 "나는 정치인이 아니라 수행자"라며 여유를 잃지 않았다.

'눈길을 가는 나그네여, 조심해서 발을 디뎌라. 오늘 내가 가는 그 행적이 뒷사람이 따르는 이정표가 되리니'.

법장 스님이 가장 즐겨 읽던 서산대사의 시구다. 어디에도 걸림이 없었던 자유자재한 수행자였던 존성 스님과, 평생 일꾼들과 똑같이 일했으면서도 뛰어난 수행력을 보였던 노스님(은사 원담 스님의 은사) 비초 스님을 사표로 삼았던 법장 스님은 후학들의 이정표가 되기 위해 수행자로서의 길을 걸었다.

고등학교 재학시절, 출가한 사촌형에게서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당당하고 여유로운 수행자의 모습'을 보고 출가를 결심했던 법장 스님. 당당하고 여유로운 수행자로서의 삶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곳곳에 남아있다.

한명우 기자

## 사형제 폐지운동 앞장 장기기증 문화 싹틔우고 북한동포돕기 자비행

1994년 개혁회의위원, 1999년 법규위원으로서 종단개혁에 일익을 담당했다.

1998년부터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의 친목 모임인 전국교구본사주지연합회 회장을 맡으면서 북한산 터널 관통 반대운동, 98년 종단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

스님은 1994년 3월 '생명나눔 실천회'를 창립, 불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고통 받는 이웃에게 희망을 주고, 깨져가는 생명에게 새 삶을 주는 사회복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뒤에 이력이 바뀐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장모문화개선을 위한 화정유연 서약을 통한 사업과 어려운 환자 돕기 운동

도 펼쳐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복지단체로 성장했다. 불교계 안에서조차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 및 장묘 문화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였던 당시 상황에서, 보다 열린 시각과 깨어있는 생각을 가진 스님의 이러한 원력과 실천행은 생명운동의 불길을 지피고 불자들을 하여금 남을 위한 이타행(利他行)을 실천하여 깨달음을 완성하도록 이끌었다. 나아가 생명나눔실천회는 개신교·가톨릭의 장기 기증 단체와 연대하여 종교의 벽을 허물고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켰다.

스님은 한국불교의 선행(禪願)을 정립하고 정법을 수호하여 인류를 구하고, 부처님의 정법을 역사와 사회에 여범하게 구현하여 청정·회합수행의 선종을 이루고자 1999년 '한국불교선학연구원'을 설립해 선종진좌에도 앞장섰다.

매년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선사상을 연구·홍포하고 있는 '한국불교선학연구원'은 부처님의 상구보리 하회중생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선(禪)의 이해를 돕고 생활화하기 위해 도심 속 선방(禪房)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스님은 1986년부터 흥성교도소 종교위원으로 활

동하면서 교정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재소자 교정교회운동을 펼쳐왔다. 2001년 6월에는 스님의 이러한 실천수행이 사회복지 증진과 교정의 사회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교정대상 자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스님은 오갈 데 없는 아이들 17명과 함께 '부처님 밥 같이 먹는 것도 인연'이라며 수덕사에서 돌봐왔고,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장학사업도 펼쳐 많은 인재를 배출했다.

스님은 이밖에도 1994년 사형제도 폐지운동에 앞장섰고, 북한 동포의 식량부족과 기아문제, 탈북자 대책, 국제난민 문제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법장 스님은 "남다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회를 위해 조그만 무엇인가라도 하고 실천하는 삶,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불교는 인류의 행복을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해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 욕심버리고 시비분별 놓으면 곧 부처

## 경허·만공 선사의 가르침

세여청산하자시(世與青山何者是)  
춘광무처불개화(春光無處不開花)  
방인악문성우사(傍人若問權牛事)  
석녀심중검외가(石女心中動外駝)로다.

화창한 봄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울 열이 붉은 날씨가 풀리듯 마음의 번민과 고민, 짜증, 슬프고 괴로운 일 모두 법당에 풀어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신나는 삶, 자유로운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법문을 하기 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 자리에 오른 것은, 선원장 초청 법회가 아니라 조계사 초하루 법회의 법사로서 이 자리에 오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전국에 계신 선원장 스님들께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읊은 계송은 경허 스님이 읊은 시로, '세상과 다름 청산이 어느 것이 읊은가? 불빛 있으니 꽃피지 않는 곳이 없어라. 만일 어떤 사람이 경허의 가풍을 묻는다면 돌계집 마음 밖의 노래라 하리라'는 뜻입니다.

'돌계집 밖의 노래' 이것이 무엇인가를 참구한다면 이 법회와 더불어 선원장 스님들의 법문을 듣는 참뜻을 알게 됩니다.

법법은 삼계에 항상 있고 없지 않건만, 있다고 드러낼 것 없이 여여하게 있는 것입니다. 불법이 쇠해서 어려운 시절 경허·만공 선사께서 혜성처럼 나타나 근역선림(檣域禪林)을 중흥케 하고 불법을 크게 펼쳤으니 이분들이 석가세존과 다르지 않고 가섭존자와 다르지 않고 달마대사와 혜가대사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자의 굴 속에도 다른 짐승이 살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경허·만공 스님이야말로 무소유의 가풍을 선양하신 분들입니다.

격렬한 조사선 가풍과 표리일체의 가풍을 선양하고 결핍없는 무애의 삶으로 일관하신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선원장 초청 법회 또한 제2의 경허와 만공을 길러내는 선불장이라 할 것입니다.

고인(古人이 이르기를 "법문을 들을 때는 엷은 살얼음을 밟는 것과 같이 하라" 하였으니 이 말은 바로 눈으로 다른 경계에 대해 관여하지 말고 잘 생겼더니 말을 잘 한다느니 읊으니 그르니 법문이 어려우니 쉬우니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한 조각 밝음의 진실한 신심으로써 법문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말 이전의 부처님 참뜻 알아야

원래 불법(佛法)은 입을 열면 그르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만 움직여도 곧 어긋나는 것이어서 개구족착(開口即錯), 동념즉과(動念即乖) 하였으니 중언 설할지라도 근본에 있어서는 모두 다 마군의 입인 것입니다. 분별심을 가라앉히지 않으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말 이전에 부처님의 참뜻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49년을 설하고 나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를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고양이가 쥐를 잡듯 일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허공장경>에도 "명상(名相)도 마업(魔業)이요, 문자도 마업이며 부처님의 말씀에 이를지라도 마업이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신심과 원력으로 경허·만공 선사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듣고 내가 가진 마음을 뒤집어 생사의 문제를 풀고 아무 결핍이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경허 스님은 1849년 전주 자동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일찍이 아비님을 잃고 형은 입산하여 아홉 살에 황계사에 들어가 경허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다 한 유학자로부터 유학을 배워 통달하게 됐습니다. 그 후 은사인 경허 스님이 환속하게 되자 경허 스님에게 계룡산 동학사 만화 스님을 찾아가라 이르셨습니다. 경허 스님은 그곳에서 경전을 탐독해 불경을 남에게 가르치는 강백이 됐습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강의를 하던 중 경허 스님은 문득 환속한 은사 경허 스님이 밟고 싶어 찾아가던 길에 전염병이 창궐하는 전안 지역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때 스님은 인생무상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동안 생사를 벗어나는 법을 가르쳤지만 짐작 자신은 생사에 허덕이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생각했습니다.

다시 동학사에 와서 모든 대중에게 "그동안 내가 설한 소리는 모두 허튼소리다. 대중들은 모두 자신의 근기와 인연에 따라 찾아가라"고 말한 뒤 문을 닫고 앉아 정진했습니다.

### "사방을 돌아봐도 사람이 없네"

'여사미래(曠事未來) 마사도래(馬事到來)', 즉 나귀의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다했었다는 공안을 참구하며 밭과 물을 먹지 않고 심지어 즐리면 송곳으로 허벅지를 찌르고, 뽕족한 송곳을 턱 밑에 두고 깎땀 점이 들면 거기에 찔러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정진을 하던 어느 날 한 사미가 올라와 "스님, 마을에 내려가니 어느 겨사가 '소가 되어도 코뚜레 벨 구멍이 없는 소가 되어야 하느니라'라고 합니다" 하는 그 소리를 듣고 환然大오 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도송을 읊으니, '사고무인(四顧無人)이니 의발수전(依鉢誰憐)이리요'.

사방을 돌아봐도 사람이 없네. 의발을 누구에게 전하리오. 인도의 성자 간디 선생도 어느 날 낫에 사거리에서 등불을 들고 사방을 둘러보자 제자들이 '대낮에 무엇 하십니까?'하고 물으니 '사람을 찾고 있다'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경허 스님을 다시 해부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경허 스님은 학문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인물이 못생긴 것도 아니고 주위에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누가 가슴을 치는 것처럼 다가설 수 있어야 진실한 신심과 원력, 자기 삶에 결핍이 없이 살 수 있는 발심자가 될 것입니다.



2004년 3월 21일 조계사 법회에서 '부처가 되고 싶다면 모든 생각을 전부 놓아버리고 이 자리에서부터 욕심내고 시비하고, 옳다 그르다 하는 분별심을 놓아야 한다'는 요지의 법문을 한 법장 스님. 현대불교 자료사진

경허 스님은 다시 결망을 지고 주장자를 짓고 서산 천장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당시 형님이신 태허 스님이 주지로 계셨고 어머니가 공양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사미가 주지스님에게 "스님, 뭇거리가 없습니까"고 말하는 것을 듣고 경허 스님이 직접 탁발을 나갔습니다. 당시는 국가가 절의 논밭을 다 빼앗아 가고 스님네들은 사대문 안 출입으로 허덕인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집앞에서 목탁을 두드리자 주인이 나왔습니다. 주인이 "시주를 하면 그 대가로 나에게 어떤 공덕이 돌아옵니까" 묻자 스님은 "대가를 바라고 시주한 공덕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주인이 다시 "대가가 없다면 누가 시주를 하겠습니까. 썩 물러가요"라고 하자 경허 스님은 "시주를 못 받음방정 어찌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는가"하고 돌아서 왔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이 진사라는 선비가 풀 한 가마니를 일꾼에게 짊어지게 하고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찾아갔던 집 주인이 바로 서산 지역에서 유명한 유학자였던 것입니다. 이 진사는 경허 스님의 범상치 않은 풍격과 언동을 보고 그 학문의 깊이와 덕의 경중을 알아보고 싶어 찾아온 것입니다. 스님은 "그때 그렇다면 저울과 잣대는 가지고 왔습니까?"고 묻자 이 진사가 "그것은 저울과 잣대로 제보

夜來八萬四千偈(아래팔만사천계를)  
後日如何舉似人(후일어허거사인)이리요.

"내가 어찌 큰 소리를 한 번 듣고 깨우치고 나니 계속될 소리가 부처님 말씀 아닌 게 없고 산 빛은 그대로 부처님의 청정법신이다. 어느 스님은 큰 소리 한 번 질러 팔만사천 법문을 깨우쳐 주었는데, 나는 뿔사람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전할 것인가."

바로 이런 경허 스님의 일화는 석가세존의 생사를 초월한 그 일이나 달마가 생사를 초월한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문장이나 말을 떠나 일체 중생에게 가르침을 전한 것입니다.

이렇듯 분별심이 끊어질 때 진실한 불교를 알 수 있고 참선하는 진실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글과 말로 알리고 하지 말고 사랑이나 분별심을 놓아야 합니다.

만공 스님에 관한 일화는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그 뜻을 어떻게 다 전하겠습니까. 다만 진실은 스스로 터득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중 만공 스님이 일본인 미나미 총독을 꾸짖은 일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경허 스님의 일화를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허 스님이 느닷없이 단청불사를 하기 위해 시주를 받으러 가지며 상좌 만공 스님을 데리고 탁발을 나섰습니다. 마을에서 시주를 받아오는 도중에 경허 스님이 주막에 가서 술을 시켜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만공 스님이 "스님, 이제 그만 하시지요. 얼굴이 벌겋게 되었습니다" 하자 경허 스님이 "주막에 술값을 치르러가"고 했습니다.

"단청불사 시숯돈으로 술값을 치르라는 말씀입니까?" 라는 만공 스님의 물음에 경허 스님은 "내 얼굴색이 술기운으로 벌겋게 되었으니 단청불사는 이미 다 된 것이거늘 달리 무슨 단청불사가 필요하냐. 건물에 술값불듯 단청하는 것은 결국은 모두 부셔지고 마는 것. 마음에 단청불사 하는 것이야말로 마음을 바꾸는 불사로 영원한 것이다"고 답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있다는 것을 간절히 가르치신 일화입니다.

### '저울질 잣대질' 하면 생사윤회 못 벗어

경허·만공 스님은 근대 한국불교의 중흥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 중에 경허 스님이 환속을 했다, 술을 먹었다, 깨변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시절의 모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경허 스님께서 "사방을 둘러보아도 사람이 없구나. 이 법을 어찌 전할까?" 말했던 것도 땀땀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할법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경허 스님은 저잣거리나 주막, 서당에서 전법을 했습니다. 중생에게 즐거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 밤낮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행위 속에 담긴 뜻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부처가 되고 싶다면 모든 생각을 전부 놓아버리세요. 이 자리에서부터 욕심내고 시비하고 옳다 그르다 분별하는 생각을 놓아야 합니다. 놓지 않으면 평생 병신 노릇을 하고 살 것이라 단언합니다.

(주먹을 쥐어 들어 보이며) 이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이걸 펴지 않으면 병신입니다. 주먹이 펴지지 않으면 병신노릇 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먹을 펴 보이며) 손을 이렇게 펴지고 오므르리지 않으면 그것 또한 병신입니다. 이 손안에 모든 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생사 없는 부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턱뼈를 들며) 물은 마실 때는 손을 오므려야 합니다. (컵을 내려놓으며) 이 때는 손을 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마음속에 고민이 있다면 모두 저에게 주시고, 대신 '만족'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 집에 아무리 금은보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은 무간지옥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마음자리를 깨닫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 법문은 지난해(2004년) 3월 21일, 조계사와 현대불교신문사 공동 주최로 조계사에서 열린 '간화선 중흥을 위한 전국선원장 초청대법회'에서 설행된 법장 스님의 특필법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02)2004-8211~2**

## 경허 스님, '악~' 소리 하나로 가르침 전해 만공 스님, 주저함 없이 日 총독 크게 꾸짖어

지 않고도 머리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하고 대답했습니다.

이 때 경허 스님이 '악' 하며 고향을 벽력같이 치고 "방금 내가 지른 소리가 몇 근이나 되겠습니까"고 물었습니다. 이 진사는 그 자리에서 깊이 사죄하고 하루 만에 경허 스님과 십년지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글과 말이 아닌 선의 가풍입니다. 경허 스님과 이 진사는 밤이 깊도록 정담을 나누었습니다.

'부처와 공자 중 어떤 분이 더 뛰어난 성인입니까?'라는 질문에 경허 스님은 "농사를 짓는 데는 농부가 제일이요, 물고기를 낚는 데는 어부가 제일이요, 시절 따라 사람 따라 인연 따라 어떤 성인에게 어떤 가르침을 얻었느냐에 따라 모든 성인은 다 제일이요 존경할 뿐입니다. 제각각 제일이라 이르셨으나 이것이 곧 부처님의 너그러운 가르침입니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경허 스님이 이 진사의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한 소리 지른 것을 참구하여 합니다. 그 일갈(一喝)에 우주의 만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사가 다 그 속에 있고 극락과 지옥, 옳고 그르고, 기쁘고 슬프고 하는 일체 만법이 다 들어 있습니다.

중국의 소동파(蘇東坡)는 학문과 문장에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스님들이 참선하는 모습을 보고는 "시웃밥을 먹고 즐기고 있다."고 자기 면에는 깨우쳐 주기 위해 절에 찾아갔다가 큰스님의 할을 듣고는 눈이 감깜해지고 분별심이 끊어졌어요.

소동파는 이 때 문득 깨달아 계승을 받았습니다.

溪聲便是廣長說(계성변시광장설이요)  
山色豈非清淨身(산색기비정정신이요)

만공 스님께서 마곡사 주지로 계실 때 미나미 총독이 31본산 주지들을 모시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때 미나미 총독이 "한국 불교는 일본에서 온 것이다. 일본 불교와 조선의 불교를 합병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데라우치 총독의 힘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만공 스님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정정본연(淸淨本然)이거늘 은하를생산(雲何忽生)산하(山河大地). 청정히 본연이거늘 어찌하여 산하대지가 나왔는고"라고 크게 일갈을 내치르시고는 "전(前) 총독 데라우치는 우리 조선불교를 망친 사람으로 마땅히 지금 무간지옥에 떨어져 한량없는 고통을 받고 있을 것이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날 밤 선학원으로 돌아온 만공 스님에게 만해 한용운 스님이 "스님, 스님의 벽력같은 소리를 듣고 미나미의 간담이 서늘했을 것입니다. 현대 기왕이면 대성일갈에 그칠 게 아니라 주장자로 한 방 갈겨주시 그랬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이에 만공 스님은 "자나 한 잔 드시게. 이 사람이. 어리석은 꿈은 방망이를 쓰지만 큰 사자는 원래 할을 하는 법이네"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말과 글이 아니요, 사무치는 일갈로 유생을 대한 경허 스님이나 칼과 총이 난무하던 일제 치하에서 총독에게 일갈할 수 있었던 만공 스님의 안목이 곧 생사가 없는 이치입니다. 이것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고 가는 것.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모두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생사가 없는 것이요, 저울질 잣대질 하는 마음은 생사윤회를 거듭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밤에 길을 가다보면 어둠 속에서 두려움과 격정이 생기지요? 하지만 고부지간(姑婦之間)에 싸움이라도 하고난 뒤 갖다 고 해 보세요. 어디 두려움이나 격정이 생길 거릅이 있습니까? 그것